

귀농은 새 삶에 대한 대안인가, 낭만인가

실상사귀농학교 각광... 12년 간 800여 졸업생 가운데 15% 귀농

농촌으로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빠르게 변하는 도시를 떠나고 있다. 사람들이 농촌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최근에는 '시골 가서 농사나 짓자'라며 귀농에 대한 로망을 갖고 떠났다가 귀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담도 오가지만 귀농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귀농, 귀촌 가구는 전국적으로 4080가구가 유입돼 전년의 1862가구에 비해 84%나 늘었다. 1990년 이후 귀농가구는 3만 4379 가구에 이르렀다. 최근 가족단위 귀농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귀농인구 또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귀농은 사회적 이민

채상현 천안연암대 귀농지원센터장은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의 이동, 직업 전환이 아닌 '사회적 이민'이다"라고 말했다. 귀농인구는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도시인들이 귀농(歸農·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 귀촌(歸村·시골에 살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것), 귀향(歸鄕) 등 다양한 형태로 농촌으로 돌아간다.

1997년 이전 한 해 평균 1000가구 미만이던 귀농인구는 1998년 외환

위기 여파로 6409가구, 1999년 4118가구로 증가했다. 이후 주춤했던 귀농인구는 200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7년 2384가구, 2008년 2218가구로 늘었다. 2009년에는 2008년 최악의 세계경제위기 이후 귀농 가구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령대별 귀농 가구는 60대 이상 8477가구, 50대 1114가구, 40대 1000여, 30대 499가구, 20대 71가구로 40~50대 귀농가구가 가장 많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꿈꾸거나 60~70년대 도시로 떠났던 이들이 다시 고향을 찾고 있다. IMF 이후 생계형 귀농에서 최근에는 30~40대의 고학력자나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출신 귀농자들이 확실히 이고 경쟁적인 도시의 삶을 떠나 새로운 대안의 삶으로 선택하는 이도 늘고 있다.

인드라망 이항민 연구소장은 "귀농운동은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조금 고쳐서 살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고, 우리 삶의 근간인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가꾸는 토대 자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전제 위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농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이는 귀농을 위해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 농촌을 떠나기 때문이다.

귀농 관련 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는 '귀농을 너무 쉽게 보는 풍토'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큼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귀농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다.

대체로 귀농인들은 '육체적 노동과 많이 수입, 뜻하지 않은 재해, 농업에 대한 무지가 도시생활에 익숙한 이들에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렵게 찾은 농촌은 가정경제, 자녀교육, 문화 생활 등 다른 문제점을 낳으며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귀농 장려 및 정착지원 정책과 더불어 관련 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떠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귀농 지원 학교 및 프로그램

귀농 열풍(?)에는 정부도 한 몫 했다. 정부가 경제위기의 탈출구로 농촌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5월부터 일자리 창출과 함께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3월 22일 귀농의 삶에 참뜻과 마음 자세 등을 강의했다(왼쪽).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귀농학교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도법 스님의 첫 강연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

교육과 농산인 인턴제도 확대, 주택 문제 해결, 농촌정착을 위한 멘토링 지원 등의 실시도 귀농인구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98년 개설된 불교계 귀농교육의 산실인 실상사귀농학교(교장 성전은)는 특성화된 귀농학교로 각광받고 있다. 실상사귀농학교에서는 단순하게 생업을 '농업'으로 전환하는 수준이 아닌 몸과 마음, 기술 모두를 겸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실상사귀농학교는 12년간 8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바 있다. 실상사귀농학교는 12년간 800여 명의 졸업생 가운데 15%가 실제 귀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상사귀농학교

의 특징은 농사짓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 동료와의 협동, 마을 주민과의 공동체 만들기에 집중한다. 또, 입소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귀농교육을 진행하고 귀농 목표를 선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있다.

실상사귀농학교는 도법 스님이 실상사 주지로 있을 때 절 땅 3만평을 귀농한 사람들에게 내놓으면서 시작했다. 개교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제2의 승가공동체로 발돋움한 실상사귀농학교는 불교를 쉽고 바르게 전하는 포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상사는 대안적 삶을 제시하는 사찰로 공동체 속에서 불교적인 삶을 사는 미래 사회의 한 모델로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대중 활동의 장으로 시작된 불교귀농학교와 실상사귀농학교, 현장귀농학교, 실상사 토지를 활용한 실상사 농장 등을 모태로 지역 활동과 생명살림운동, 공동체 운동을 실천하는 불교 생명,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 학교, 복지공동체인 한생명 등 기관구 들도 생겨나면서 불교계가 사회에 제시하는 공동체적 대안의 한 전

#"귀농은 생명평화의 삶"

"귀농인가? 낱물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제26기 불교귀농학교 첫 강의날인 3월 22일 도법 스님의 첫 질문이었다.

'생명평화의 삶, 귀농'을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 스님은 "귀농해서 보람을 느끼고 성공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인생 설계를 면밀히 하고 정리하면서 바꾸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도시생활이 마땅치 않아서, 말년에 경제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겠다는 생각이라면 귀농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귀농 이전에 자신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았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하라"고 당부했다.

도법 스님은 요즘 사회를 '생명·평화위기가 일상이 된 사회'라고 규정지었다. 스님은 "지금과 같은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성공적인 삶을 계속 꿈꾼다면 모두가 죽는다. 도시 문명사회가 반사회적,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도시인들에게 귀농의 관건은 '돈'이다. 농촌에서 잘 벌어서 잘 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농 생활은 어려워진다. 도법 스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농사, 훌륭한 농사를 통해서 돈을 벌기 힘들다. 돈을 벌려면 생명을 짓밟고 파괴하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주체, 자유, 창조적 삶을 위한 귀농은 생명을 가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상사 귀농학교에서 중요시 하는 것 중 하나는 공동체 생활이다. 인드라망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깨닫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자연의 삶이 바로 인드라망이기 때문이다.

귀농은 공동체의 삶을 기본으로 한다.

귀농 지원을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삼아, 사회 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상민 기자

준비와 목탁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가 있다. 세계 전 월 250만원씩 받은 근로자는 어느 날 받은 금액의 70%인 월 175만원씩만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받아야 할 나머지 금액 900만원은 1~2년 후에 '하는 거 봐서' 준다고 했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최근 '비정년트랙 전입교원 계약조건(급여 등) 안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비정규직 연구전담 교원을 대상으로 3월 1일자 신규·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는 공문에는

동국대의 이상한(?) 계산법

월급만 미루는 '채찍'으로도 모자라 효도수당, 식대, 복지카드의 혜택도 함께 없앴다. 그러고는 한편으로는 미안(?)했는지 '당근'도 적었다.

공문에서 재임을 조건 초과분에 대해 논문게재장려금을 지급하고, 재임용 조건 2배 초과시 전년급여의 10%의 범위 내에서 급여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의 한 연구자는 "월급에서 수십 만원이 줄면 어떻게 생활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

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불면 날라가는 비정규직 신분인 그는 부당한 제도에도 학교에 하소연조차 할 수 없다.

오영교 총장은 2009년 12월 10일 총장경영리포트에서 학교평가가 부진한 원인이 교육여건 및 교수연구 분야 실적 저조에 있다고 진단하고 획기적인 연구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정규 교원은 강의시간에 상한선을 두고 연구에 매진케 했다.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장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내비게이션 사찰 표기가 무덤? 모젠, 종평위에 공식 사과하고 아이콘 수정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사찰을 무덤 아이콘으로 표시해 물의를 일으켰던 모젠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대표 혜경·손안식, 이하 종평위)에 공식 사과하고 문제의 아이콘을 수정조치했다.

현대가 기획총괄본부 산하 CL사업부 박인모 모젠사업팀장, LG전자 최수현 car 품질보증실장은 3월 19일 조계종 사회부를 방문 사과했다.

혜경 스님은 "불교를 폄하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4월 중순에

각각 수정을 촉구하는 종평위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도 전달했다.

회신 공문에는 "사찰 표기 문제가 있는 내비게이션은 2009년 7월 생산 및 9월 정기업데이트 이후 생산된 2개의 모델"이라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3월 19일 이전에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Shop

사은품 증정

등록기 145,000
☎ 02) 2004-821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초청법회 및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취임식

소통과 화합의 대법회

2010년 4월 16일(금)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주관 광주불교교인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원용화학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불교방송, 불교신문, 불교TV, 법보신문, 현대불교, (주)문화통
협찬 (주)백제, (주)한남세리미, 금호산업, 기륭건설, 라미다프라자광주호텔, 동양석재(주), (주)인킬라스, (유)나라우수, 태오건설(주), 불교박물관
문의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사무국 ☎ 062-385-133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장승 크스님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지용현